

심리학 이론, 연구, 실제에서 일은 오랫동안 개인의 심리적 건강 유지, 표현, 발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Baling & Griffiths, 2002; Blustein, 2006; Richardson, 1993). Bluestine(2008)은 일을 경험과 특성의 넓은 범주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개인들이 공동체, 사회, 경제에 의미 있는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일은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는 행위의 수단으로써 가치를 지니며, 타인 및 더 넓은 커뮤니티와의 사회적 연결의 구조이자 의미를 만들고 기초가 되는 것이며(Ferrari et al., 2009), 타인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관계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활동이다(Rosenberg, 1965). 이와 같이 일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일이란 자기를 형성하는 자원이자,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Bluestein, 2006; Savickas, 2005; Hall, 1996; Spector, 2005).

최근의 진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을 선택하고 지속하는 것, 일과 관련된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self)’라는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로 경험에서의 자기란 개인의 내적인 경험과 사회와 직업적 맥락을 연결하는 개념으로(Hartung & Subich, 2011), 개인의 흥미, 가치, 효능감, 정체성, 희망, 꿈에 대한 개념 등이 자기와 관련된다. 개인은 자신의 흥미, 성격, 가치관, 타인으로부터의 영향,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삶의 맥락들을 고려한 진로 결정 과정을 경험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삶의 외적 맥락과 개인의 내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진로관련행동, 교육 및 직업 선택 및 이행에

있어 개인의 신념(Betz & Hackett, 1983)을 실현해 나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Schultheis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치관이나 경제적 여건, 사회 계층적 맥락 속에서 진로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발달 단계에서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평가하고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Tanner(2005)는 성인기로의 진입 과정에서 대학생 시기는 가족에 기원을 둔 아이 같은 의존적 존재에서 성인기의 자율성을 얻게 되는 특별한 기간이라고 언급하며, ‘혼자 견뎌내며 배우는 시간’, ‘자급자족’ 혹은 ‘어른의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는’ 시간이라고 설명하였다(Arnett, 2002).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경험을 형성해가는 실제적인 진로 탐색 및 결정의 시기를 겪으며, 이 때 일의 목적과 의미가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이렇게 진로결정이 성인으로 이행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주된 발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사회에서는 대학생이 되어도 진로와 관련된 목적이 없거나 방향의식이 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Evans & Heinz, 1994; Shulman, Cohen, Feldman, & Mahler, 2006). 특히 국내의 대학생들은 일에 대해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은 채로 부모나 사회적 기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거나, 남들이 하는 진로경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생이 되자마자 스펙 쌓기, 공무원 시험 또는 행정고시 준비 등 전형적인 취업경로를 쫓아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한 이 세대들은 더욱 쉽게 진로에 대한 불만족을 느

끼거나 이직을 선택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에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직업 불만족으로 인한 이직, 실업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인 손실이 될 것이다.

대학생들이 당면한 또 하나의 과제는 변화하는 경제를 조망하고, 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이다. 최근 국가적으로도 청년 실업 및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직업정보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일의 의미나 개인의 진로 정체성이 고려된 것 이라기보다는 정보 제공이나 단기간의 아르바이트 등에 치중되어 있어, 개인들이 적절한 진로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도움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arsons(1909)는 자기 지식, 직업적 지식,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명확한 이유를 가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경력개발에 핵심적인 시기인 이 시기에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알 필요가 있고, 결국 일의 목적과 의미를 자신의 진로목표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지연, 2006). 자신이 갖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며(Harpaz & Fu, 2002; Nord, Brief, Atieh, & Doherty, 1988), 더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하기 때문이다(Arnold, Turner, Barling, Kelloway, & McKee, 2007). 따라서 자신에게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일의 의미를 형성해 가며 결국 그것을 현명한 진로선택으로 이어가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과업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적 관점이나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Bowe, Bowe, & Streeter, 2000; Gini,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학적인 기반에서 일에 대해 연구를 한 선구적인 시도는 1980년대 8개의 나라(미국, 독일, 이스라엘, 유고슬라비아,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에서 시작된 MOW 연구(1987)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의 개념을 구성하는 4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취, 돈과 같은 실용적 측면, 사회적 교류와 연결된 측면, 의무감, 일과 관련된 노력과 스트레스의 측면이다. 또한 Chaves 등(2004)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의 개념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분석된 주요 개념은 일의 정의, 일의 목적, 가족들로부터 배운 일에 대한 교훈이라는 세 가지였고, 하위영역으로 제시된 일의 정의로는 돈, 성취와 같은 일의 성과, 물질적 정신적 행동, 학업, 사회적 기여와 같은 일의 차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에 대한 태도, 자기 개념의 향상, 책임감과 같은 개인적 발달과 관련되었다. Baumeister(1991)는 일의 의미를 직무(job)로서의 일, 경력(career)로서의 일, 그리고 천직(calling)으로서의 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직무로서의 일은 일에 대한 개인적인 몰입이나 만족 없이 보수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 경력으로서의 일은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욕구에 의해 동기화되는 일을, 천직으로서의 일은 개인적인 임무, 의무, 운명의 의미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 선행연구들을 보면 김진숙(2004)은 일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을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일의 개념은 생

계유지와 개성의 발휘 및 자아실현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역할의 분담과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의 개념에 대해 탐색한 연구가 있었으며(박유정, 2007), 일의 의미를 소명(calling)이나 의미추구로 보아 일의 개념에 대한 모형분석을 시도한 연구들도 있었다(박주현, 2011; 장수현, 2012).

일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아직 탐색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김진숙, 2004; 장형석, 2001), 일의 개념이나 의미와 관련된 변인들의 특성 및 형성과정을 바탕으로 한 진로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한국의 진로상담에 대한 경향을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리뷰한 논문(Gong, Deng, TakizoYagi, Mimura, & Hwang, 2013)을 보면, 국내의 직업 및 진로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는 가장 빈번한 연구는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것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진로 선택과정에서 일과 관련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한국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진로상담이론은 서구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국내 개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을 한계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생각이나 심층적인 수준에서의 진로결정과정경험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적 및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가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진로 교육 전반에 가족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

거나 프로그램에 적용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일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진로 결정과정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의 현실 및 가족의 영향과 같은 환경적이고 맥락적인 특성들이 대학생들의 일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진로 결정과정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일의 의미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시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일의 개념을 형성하고,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을 풀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은 일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각자 다른 일의 의미나 개념을 형성하게 된 맥락이나 이유는 진로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떠한 특성이나 요인들이 대학생의 일의 개념을 결정하고, 진로선택을 하게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 5개 대학의 대학생 27명으로, 남학생 14명, 여학생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재 대학에서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고 있거나, 진로와 관련된 특강에 참여했거나, 혹은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로 모집되

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년 별 구성은 1학년 1명, 2학년 10명, 3학년 2명, 4학년 14명이었으며, 간략한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인적 사항

사례번호	성별	학과	학년
1	여	국제학부	2
2	여	환경공학과	2
3	여	심리학과	2
4	남	응용통계	2
5	남	경제	2
6	남	경제	2
7	여	영어영문	4
8	여	정외과	4
9	남	법학과	4
10	남	법학과	4
11	여	기독교학과	2
12	남	응용통계	2
13	남	영어영문학	2
14	남	경영학과	1
15	남	말레이-인도네시아어	3
16	여	사학전공	3
17	여	전자공학	2
18	여	중어중문	4
19	여	화학나노학과	4
20	남	화학과	4
21	남	경영학과	4
22	여	법학과	4
23	여	법학과	4
24	남	전기전자	4
25	여	경영학과	4
26	남	생명과학	4
27	남	건축학과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일의 의미의 형성과정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인 단계이기 때문에(김진숙, 2004; 장형석, 2001), 실제 대학생의 생생한 경험에 바탕을 둔 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최근 진로 발달연구에서 진로발달 연구에서 측정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 실제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방법론적 관점으로(Baumeister, 1991), 일의 의미 및 진로결정경험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나 형성과정에 대한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얻기 위해 포커스 그룹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인식을 얻기 위한 토론 방식으로, 선택된 주제와 관련이 있는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선택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끌어 내어 그 경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진행자는 미리 작성한 질문에 따라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 기록을 한 후 얻어진 중요한 정보와 개념을 분석한다(Krueger & Casey, 2009).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가자들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견을 형성해 가기 때문에 개별적인 면담보다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 과정이라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 비슷한 환경과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자연스

렵게 고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진로선택을 앞둔 4학년 그룹은 저학년 그룹에 비해 일의 의미 및 태도에 있어 구별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 내 동질성 확보를 위해 1-3학년으로 구성된 저학년 그룹과 4학년으로 구성된 고학년 그룹으로 나누었다. 학년을 기준으로 구별된 두 그룹은 남, 여, 혼성의 6개의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본 대학생들의 일의 의미와 진로 형성과정을 본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목적적 표본추출(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인터뷰 질문을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더욱 풍부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은 연구자들이 문헌고찰과 사전 예비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사전 예비연구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5명에 대한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으며, 개방형 질문과 후속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비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 간에 적절한 문항을 추리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에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에 대한 생각들이 이전 시기와 차이가 있나요?” 등과 같은 일의 의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 볼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면접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실제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인 응답을 위하여 응답을 촉진하는 후속 질문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 6차례에 걸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각 인터뷰 소요 시간은 각 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인터뷰 시작 전 연구에 대한 취지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인터뷰 질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면담을 중지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참여자 권리에 대해 안내한 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기로 녹음 되었으며, 분석자들에 의해 컴퓨터로 전사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Hill, Thompson과 Nutt- Williams (1997)가 개발한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

표 2. 질문내용

질 문 내 용	
1.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그러한 생각들이 이전 시기와 차이가 있나요?(고등학교 졸업, 대학입학, 취업 준비)
3.	당신에게 충분히 많은 돈이 있다면 일을 계속 할 건가요?
4.	나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충분한 돈과 지지가 없다면, 일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5.	진로 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던 요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귀납적 방법으로 자료들을 의미 있게 유목화 하는 범주들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다(Hill, Knox, Thompson, & Nut-Williams, 2005). CQR에서는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편향되거나 주관적인 관점을 피하고 자료의 누락을 막기 위해 다수의 평정자와 감수자 간의 반복적인 의사교환을 통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평정팀과 1명의 감수자로 총 4명이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평정팀은 상담심리 전공의 박사과정 2명과 석사과정 1명, 1명의 감수자는 교육학과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평정팀 구성원들은 모든 포커스 그룹의 축어록을 읽고 유사한 내용들끼리 묶어 영역(domain)을 분류하였다. 영역은 유사한 주제에 관한 자료를 묶는데 사용되는 일종의 틀로 평정팀 내에서 합의된 영역은 평정자 간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영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수자에게 감수를 받아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은 모든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반복되었다. 이후 각 응답에 대해 요약반응(Core Idea)을 작성하였다. 요약반응이란 각 영역과 관련한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의 응답의 핵심을 명료화한 것이다(Hill et al., 2005). 특히 이 과정에서 평정자들의 주관적인 추론이 들어가지 않도록 응답자의 말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자 작성한 후, 합의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대한 감수자의 감수를 받았다. 그 후 평정자들은 감수 받은 요약반응들을 유사한 내용들 끼리 묶는 교차분석(Cross Analysis)를 통하여 범주를 개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정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일치 된 내용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 과

합의와 감수 분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개의 영역을 추출하였고, 이를 16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었으며, 그 중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은 6개의 하위범주로 나뉘었다. 각 범주에 대한 응답빈도를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면접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영역 1. 일의 의미

대학생들이 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에게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일의 의미를 경제적 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5 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외에 일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응답하거나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개인적인 성찰 및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응답 등이 있었다.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것

가장 많은 응답이 포함 된 범주로 일이 생계를 위한 경제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총 15명의 응답자에 의해 도출되었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사례 13)

표 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결정과정에서의 경험

영역	범주	응답빈도				
		합계 (27)	고학년 (13)	저학년 (14)	남 (14)	여 (13)
1. 일의 의미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한 것	15	8	7	8	7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	7	4	3	2	5
	나를 알아가는 과정	7	3	4	2	5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	6	4	2	5	1
	명예/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것	4	2	2	1	3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3	2	1	2	1
	성취감을 주는 것	3	1	2	1	2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3	3	0	0	3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	2	1	1	0	2
2. 진로결정 과정에서의 경험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	22	11	11	12	10
	특정 직업을 요구함	16	10	6	10	6
	부모님의 직업윤리 및 태도에 영향을 받음	11	4	7	4	7
	부모님의 반대로 진로를 변경함	11	7	4	6	5
	직업의 안정성 추구를 강조함	7	3	4	5	2
	직업의 경제적 보상을 강조함	6	2	4	3	3
	원하는 진로를 지지함	4	1	3	1	3
	다양한 사람들(군대, 동아리, 선후배, 교수)을 보면서 진로에 대한 시각이 바뀜	17	8	9	10	7
	진로 선택 시 전공을 활용하려고 노력함	13	5	8	5	8
	다양한 경험(여행, 아르바이트, 구체적인 직업탐색)을 통해 시야가 넓어짐	11	5	6	5	6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음	10	4	6	6	4
	성격과 흥미를 고려함	10	8	2	5	5
	최절경험을 통한 능력의 한계 경험	10	7	3	4	6

저한테 일은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평생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는 일. (사례 22)

일은 그냥 딱 돈인데, 그냥 거기서 버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례 26)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

이 범주는 일이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범주에 포함된 응답은 일은 삶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즐겁고 보람된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그 예로 보수를 받지 못하였지만 일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그 일을 지속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일을 통해서 삶의 활기를 얻는다는 사례를 포함하여 총 7사례가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일은 거의 다, 대학교 나오면 다 하잖아요. 근데 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아직, 아직 대학교 초반 때라서 그런지 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일을 하면서, 아 이 정도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할 정도가 아니라도 그냥 하고 싶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아니면 그 쪽 일을 하면서, 원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나중에 뭐 그쪽 열심히 하면서 성취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쪽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례 3)

나를 알아가는 과정

이 범주는 일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고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응답을 포함하여 총 7 사례가 확인되었다.

보통 대학교 때는 너 어디 학교 다니니? 이래서 저의 정체성이 확립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넌 어떤 일을 하고, 어

떤 직장을 다니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서 저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사례 25)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

이 범주에는 일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일과 관련한 주변 요인들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사례들이 포함되어있다. 응답자가 원래 원했던 진로를 부모님이 반대한 경우 혹은 현실의 제약에 부딪힌 경우 차선의 진로를 택하게 되면서 일 자체에 두었던 의미의 비중을 줄인 경우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보다는 남학생들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총 6명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회계사에 몸을 담고 나서, 아는 분이 좀 강력한 권유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4년 정도 부모님이랑 싸우면서. 저 때문에 부모님이나 불화가 일어나는 것 보다 가정과 조화가 저한테는 좀 더 좋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계사 쪽을 공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 자체가 주는 의미는 원래 있었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 자체는 좀 낮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례 21)

명예·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것

일을 통해 사회적 이미지 및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일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응답한 범주이다. 일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타인의 인정을 받거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총 4명의 사례가 나타났다.

저는 경제적인 것 보다는 제가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점점 더 공부를 해 갈수록 좀 더 그게 더 명확해 지는 것 같아요. (사례 19)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인맥을 쌓는 것이 일의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응답이 포함된 범주이다. 총 3사례가 나타났으며 일을 통해 여러 타인과 관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관계에서 자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일이 단순히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경험을 많이 쌓고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은 딱히 뭐 접하진 못했는데, 뭐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했던 경험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일단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일의 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에 대한 경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인맥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거라 생각을 해요. (사례 14)

성취감을 주는 것

일이란 목표달성을 통하여 성취감을 얻는 것이라고 지각한 범주이다. 이들은 자신의 목

표, 하고 싶은 일 등을 찾고 달성하기 위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총 3명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은 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례 2)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

일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범주이다. 사회에 보탬이 되고 그것에서 가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총 3명의 사례가 나타났으며, 응답은 4학년 여자에서만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과학 쪽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아직까지 연구가 완결되지 않거나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 계속 해서 학문 쪽 일을 하다 보면 수입이 솔직히 안 생길 수는 있지만, 사회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이라는 점에서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례 19)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

일이란 자신의 삶의 큰 틀을 잡을 수 있게 해주며, 사람답게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범주이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응답자들은 인생에서 여유롭게 쉬는 것보다는 바쁘게 일을 해서 보람을 찾는 것이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였으며, 총 2사례에서 응답되었다.

수입창출이라던가 개인의 보람을 얻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최소한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면 일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요새 컴퓨터 게임하다가 하루 낱밤 새면은 며칠 동안 생활패턴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보람이나 수입창출을 떠나가지고, 그냥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사례 5)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 때쯤 올라오니까 이제 슬슬 부모님들도 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이 되는 게 어떠냐. ‘공무원이 되는 게 어떠냐.’ 또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가지고, 여자로서 공무원으로 일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니까 계속 공무원을 얘기 하시고 아니면 교사. 계속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고3 일 년 내내 아버지한테 아침, 저녁으로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공무원 아니면 교사’ (사례 8)

영역 2. 진로결정과정에서의 경험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많은 사례에서 가족의 경제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은 대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수라고 되게 많이 그랬었어요. 부모님이 하시려다 못 이루신 꿈이라고 저에게 되게 강조하셨는데.. (사례 25)

부모님으로부터의 영향

이 범주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모님의 특정 직업에 대한 요구, 윤리관 및 태도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지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22사례에서 이와 관련된 응답이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직업윤리 및 태도에 영향을 받음. 부모님의 직업 활동 및 일에 대한 자부심 및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1명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특히 여성 응답자의 경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가 일을 안 하거나 포기한 경우 여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조언을 들었거나 집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본인은 일을 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한 응답자도 있었다. 반대로 맞벌이를 하는 어머니를 보며 여자도 일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정 직업을 요구함. 부모님으로부터 특정 직업에 대한 강요를 받았다는 응답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포함된 사례는 16명으로, 특정 직업으로는 변호사, 교수, 공무원, 교사 등이 있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중략) 그 영향으로 일에 대한 환상이 좀 커진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

넉한 건 아닌데,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일단 제가 외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아빠가 주재원으로 외국에서 계시면서, 너도 반드시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되어라 하면서, 한국은 진짜 좁지 않느냐고, 해외에 나가서 정말 큰 무대에서 놀라고 맨날 말씀을 하셨어요. (사례 1)

저희 엄마도 맨날 어렸을 때부터 막, 꼭 일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나중에 일 안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례 17)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아버지인데, 여기, 저기서 인정 못 받아서 술 먹고 들어오면 또 집에서 인정 못 받고' 그런 게 뭔가 아버지랑 딱딱 들 어맞으면서 '아, 이렇게 살면..' 물론 여기서 첫 번째 든 생각은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다, 이근데 이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시켜 보니까 만약에 내가 저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까?' 뭐, 처자식 보는 재미로 산다고들 하지만, 저렇게 살면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안 반겨주고,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한번뿐인 인생 재미있게 살다 가야겠다. (사례 12)

부모님의 반대로 진로를 변경함. 실제 자신이 원했던 진로가 있었으나 부모님의 강요나 권유로 인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이다. 이 범주에 포함 된 사례는 총 11명이었고, 그 내용을 살펴 보면 가부장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가 있었고, 이 경우 부모님이 원하신 진로는 자신의 적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진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다소 무기력한 태도가 확인되었다.

(부모님의 영향이) 저는 굉장히 컸어요.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거든요. 아버지가 가장 정점의 위치에 있고, 피라미드 구조식인데, 아버지가 한 말이 곧 진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는 꼭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학과를 아버지가 추천하셨죠. 아버지가 '법이라는 거는 모든 학문의 기초이고, 항상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밥벌이가 될 수 있는 수단이니깐 법학과를 가라'고 했고, 저도 그냥 뭐, '그래, 그냥 복전하면 돼지' 하고 생각하고 법학과를 오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행정고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버지 생각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시 같은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아요. 보게 되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보라고 하시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사례 10)

저는 원래 이과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돈 관련해서 문과를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뭔가 협박으로 그래가지고 문과를 가게 됐는데...(중략) 부모님 같은 경우 굉장히 명예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거 원하시고. (사례 4)

직업의 안정성 추구를 강조하심. 진로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있어 안정성을 우선으로 강조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범주이

며, 총 7명의 사례가 포함 되었다.

아무튼 아직도 전 잘 몰라서, 부모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부모님이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지 않냐’,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약간 주입식으로 시켜서 저는 이제 안정성 있는 직장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례 6)

가장 큰 거는 좀 불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엔 IMF를 겪으셨거든요. 채취업을 하시긴 하셨는데, 직장에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 계셨는데, 그런 직책에서 떨어지시고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가장 컸던 거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냥 직장에 있으면 잘릴 가능성이 크다, 너의 무기를 가져라’ 라는 식으로. (사례 21)

직업의 경제적 보상을 강조함. 진로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보상 부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받았다는 응답을 포함하고 있는 범주로서 총 6명의 사례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적인 진로라고 언급한 경우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자식에게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강화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압박이죠. 저의 의지는 거의 영향이 없죠. 저만 있다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제가 딱 가고 싶은 길로 가겠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 오

셨기 때문에 ‘너는 돈 되는 전공으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렇게 꺾을 수가 없죠. (사례 12)

원하는 진로를 지지함. 이 범주에서는 진로선택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 및 결정에 대해 부모님의 지지와 존중을 받았다는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총 4사례의 응답이 나왔다.

그냥 부모님이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으셨어요. 그냥 항상 저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는 편 이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알아서 지고. (사례 17)

다양한 사람들(군대, 동아리, 선후배, 교수)을 보면서 진로에 대한 시각이 바뀜

이 범주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진로 결정 및 탐색과정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거나,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 경험들이 제시되었고, 17명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많은 다양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보면 아 나는 이런 강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걸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거 같아요. (사례 11)

아래의 사례에서는 동아리 친구들이 자신의 성격에 맞는 것 같으면서 추천을 해준 진로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대학 생활 하면서 동아리 활동이나 집행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좀 다른 사람들도 있고,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를 인정하다 보니까. 또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직업이라는 게 점점 더 넓어졌던 거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더 확장하는 계기가. (사례 19)

저는 대학원을 누구나 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학원을 가야지’ 라고 얘기 했는데 제 친구들이 ‘자기는 이제 공부 다 때려 칠 거’라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친구를 통해서 좀 깨달았어요. (사례 7)

진로 선택 시 전공을 활용하려고 노력함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성적에 맞춰서 해당 전공을 선택했으나, 취업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전공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거나, 적성이 전공과 잘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통해 진로를 탐색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총 13사례이다.

대학교 입학할 당시에는 생각했던 진로랑 조금 틀어지게 와서, 고등학교 때는 연구원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다른 학과에 오게 되어서, 고민을 했어요. 연구원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닌 이상 너무 그렇게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그랬는데 2학년 들어서 전

공 공부 하게 되다보니까 이 분야도 저한테 맞는 거 같고요. (사례 2)

다양한 경험(여행, 아르바이트, 구체적인 직업탐색)을 통해 시야가 넓어짐

대학 입학 후 경험들이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총 11명의 응답이 포함되었다.

저는 조금 대학에 올라가서도 처음 한 달 동안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첫 미팅을 하고 애들이랑 놀고 중학교 때 친구를 대학에서 만나서 맨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공부 아닌 다른 거를 하는 것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 그리고 책 같은걸 봤었는데, 여행하면서 사는 걸 보고 되게 행복해 보여서 굳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사례 23)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달음

돈을 고려하지 않고 진로를 생각해 왔으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알고, 등록금, 취업한 선배들,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돈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10명의 응답들을 포함한 범주이다.

공대에서 연구원이나 다른 직업을 가려면 필수적으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전 사실 대학원 연구원 이쪽을 많이 고민을 했던 것이 대학원에 진학하면 돈도 많이 들고 물론 장학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것도 지급되는 선에서만 있는 거고, 그런 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도 동생들이 있는데,

아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공부할 때 또 학자금? (사례 2)

성격과 흥미를 고려함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를 발견하거나 이해하게 된 경우 등을 포함하여 10명이 응답하였다.

나 혼자 하는 일이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애들이랑 얘기하고 약간 계획 짜고 마케팅이 쪽 업무가 더 재밌는 게 느껴졌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하는 게 뭔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마케팅 일이 관심이 많고. (사례 25)

대기업 가서 일하는 거 자체가 너무 막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는 결여되어있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광고회사나 제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남이 시키는 일만 할 것 인가가 중요한 것대예요. (사례 27)

좌절경험을 통한 능력의 한계 경험

시험의 실패, 원하던 학과나 대학으로의 진입의 좌절 등으로 인해 이상적인 진로의 실현 가능성에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진입장벽에 대한 과도한 지각으로 인해 원하는 진로를 포기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외교관도 되고 싶고 막, 국제기구도 가

고 싶고 막, 외교통상부에서 일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아 제가 막 너무 경제를 못 하는 거예요. (사례 1)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해도 그런 애들 못 따라 가는 게 현실인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거야, 예전에 그랬었다고요. 지금은 아니니까 접는 게 맞다고. (사례 23)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로의 진입을 위한 과정으로 실질적인 진로의 탐색과 결정을 이루게 되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경험과 환경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있는지를 대학생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6개 그룹, 27명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합의적 질적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여, 도출된 2개의 범주와 16개의 하위 범주를 결과에 기술하였다.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그 시사점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첫 번째 영역의 분석 결과, 참여자들에 의해 ‘일’의 다양한 의미가 도출되었으나 참여자들의 응답이 특정 범주에 편파된 경향을 보였고, 일부 범주에서 성차가 확

인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일을 통해 얻는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정과 같은 외적인 차원,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즐거움과 개인적 만족, 성취감 등의 내적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 타인과의 관계 등 외부세계와의 연결의 수단으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이 일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를 크게 경제적 보상 등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힘을 의미하는 생존과 힘(survival and power), 일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대인관계나 사회, 문화 환경과 연결된 느낌을 의미하는 사회적 연결(social connection), 개인적인 관심의 표현, 일을 통해 형성하는 자기-개념 등의 내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을 의미하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했던 Blustein, Kenna, Gill과 DeVoy(2008)의 관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응답의 빈도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외적인 보상’과 관련된 의미를 크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일이 갖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에 비하여 일의 속성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일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김진숙(2004)의 선행연구에서 192명의 대학생 중 80%에 가까운 연구 참여자들이 일이나 직업은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인 대가를 얻는 수단이라고 응답한 것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의 개념을 물었을 때 일이 돈을 얻기 위함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선행연구들(Blustein. et al., 2002; Chaves et al., 2004)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인 혜택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서

울 소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Chaves et al., 2004)나 노동자 계급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Blustein et al., 2002)의 결과와 일치된다는 사실은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이 과열된 경쟁구도 속에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경쟁에만 몰두하며 심리적인 여유를 느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반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 개인이 응답한 일의 의미가 한 가지 범주에 국한되어 있는 다소 단순한 양상을 보여,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차원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일은 오로지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고(e.g., 사례 12: 저는 일단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13: 어느 정도 경제적인 면에서만,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 18: 저는 좀 일이 돈 버는 수단의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일을 통한 경제적 보상’이나 ‘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의 범주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밖에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나 여자 응답자에게서는 발견되었던 범주인 일은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라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의 개념과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다양한 지표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이탈리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Ferrari et al., 2009)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고, 낮은 비율의 학생들만이 일을 심리적인 만족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일에 대하여 더 복잡한 개념을 갖는 것은 더 적응적인 능력과 정적으로 관련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진로나 일이 자신에게 가져오는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성찰과 탐색을 하는 것이 더 적응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상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일부 참여자들에 의해 일은 경제적 수단일 뿐, 일에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범주가 구성되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부모님의 반대 및 강요에 의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을 경우 개인이 일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일에 대해 다소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e.g., 사례 15: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21: 일 자체가 주는 의미는 원래 있었지만, 지금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 자체는 좀 낮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은 외부적이고 도구적인 의미 뿐 아니라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과 내적 동기가 중요한 요소임은 기존의 주요 진로 발달 이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Blustein et al., 2008; Ryan & Deci, 2000).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연결감, 과업 수행에서의 유능감 등을 통해 일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와 동기를 내면화해 가는 것이 대학생 시기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진로 교육이 요구된다.

일의 의미와 관련된 결과에서,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남학생에게 치중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이 일이 개인의 흥미를 표현하거나 자아개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의 의미를 갖는다는 응답은 여학생들에게 치중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이는 사회적 통념상 여학생들에 비하여 남학생들에게 일을 통한 가족 부양의 책임과 의무가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남학생 개인에게 일이 내적인 가치의 추구나 보상보다는 좀 더 부정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학생들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 상, 일로 인해 부과되는 책임감에서 좀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자신을 탐색하고 실현하는 도구로서 일을 지각하려는 시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되기 위한 도구적인 통로로 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것’이라는 응답은 여학생에 치중되어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일이란 자신의 삶의 큰 틀을 제시해주며,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한 응답이었다. 내용면에서 구체적인 일의 의미가 분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삶에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이 갖는 의미에서 ‘경제적 보상’이라는 범주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지위나 명성, 권력과 같은 외재적인 가치를 여학생에 비해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대학 4학년생의 구직 형태에서의 성차를 확인한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장재윤 등, 2004).

둘째,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의 경험 및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는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영역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진로 결정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밖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진로에 대한 시각을 조정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에게 있어 부모님의 영향이 핵심적인 것으로 드러났고, 그 내용에 다양성이 발견되어 부모님의 영향에 대한 범주는 6개의 하위 요인으로 세분화 하여 제시하였다.

진로란 개인이 일련의 발달 과업을 수행해 나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직무 만족과 삶의 만족은 개인이 능력, 욕구, 가치, 관심,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자기 개념에 대한 충분한 수단을 어느 정도 찾는가에 달려있다(Super, 1990). 실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 선배, 교사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뿐 아니라, 여행, 아르바이트, 군대생활, 구체적인 직업 탐색 등의 실질적인 경험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성격과 흥미에 대한 고려, 좌절 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해 가면서 진로를 변화시키고 조정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목 할 만 한 점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과 흥미, 능력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응답의 절대 다수가 4학년이었다는 점인데, 이는 대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를 탐색할 기회를 많이 갖고, 실제 진로를 자기와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좌절 경험을 통해 한계를 깨달았다는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실제 고시 등의 시험에 실패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하향 조정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

며 진로의 목표를 조정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실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로 장벽에 부딪히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대처와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감이 하락되거나 혼란을 느끼는 경험을 한다고 응답하여, 대학생이 마주하게 되는 진로 장벽의 내용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처해 갈 수 있는 상담 개입이 요구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응답자들은 고학년이 되어감에 따라 현실적인 요인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는데,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현실적인 요인인 가족 경제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을 느꼈으며, 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현실을 깨달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현실’이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낮은 취업률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대학생이 가시적인 성과나 보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진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지각된 진로 장벽과 진로고민이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되어있는 현실은 진로 정체감이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 직업 세계에 대한 실질적인 탐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대학생들이 진로 정체감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진로 장벽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독특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 정체감을 확립해 갈 수 있도록 효과

적인 진로 지도와 진로관련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경제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과 관련된 응답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아서 일의 목적에 있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응답의 절대 다수가 남학생으로 확인되었던 김진숙(2004)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두 번째 영역에서 대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진로 발달에 대한 가족 및 부모 요인의 영향은 많은 직업심리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Dietrich & Krachke, 2009; Keller & Whiston, 2008; Li & Kerpelman, 2007).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요인 중 개인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개인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영역은 가정환경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대다수의 참여자가 진로 탐색 및 결정의 과정에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특정 전문직을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aves 등(2004)의 연구에서 많은 수의 미국의 청소년들이 일에 대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버는 것을 통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나 일에 대한 윤리, 성실히 근무하는 태도나 습관 등과 같은 자신의 일에서 적응적이 되기 위한 자질을 배웠다고 응답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님의 직업윤리 및 태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소수였으며 내용은 상대적으로 다양했는데, ‘직업적 자부심을 가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았던 엄

마의 삶을 보며 여자가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나 ‘부모님이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것을 보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적 보상이나 안정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부모세대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세대가 거쳐 온 시대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 시점에 20대 초반의 자녀를 둔 50대의 부모세대는 한국전쟁이후 태어난 세대로서 1955년부터 1963년 까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1960-70년대에 빈곤의 시대를 지나왔고, 1980년대 사회로 진출하면서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경제적 풍요로움의 혜택을 누렸다. 이후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신화가 IMF위기로 이어지면서, 위로는 승진에 대한 불안과 해고 가능성에 직면했고 아래로는 신세대 후배들과의 정서적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사회적 변화를 갈구하면서도 가정의 안정을 회구하는 이중 잣대를 갖게 되었으며,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로부터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지 못해 스스로 노년을 준비해야하는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다(김기승, 윤성원, 2012).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험을 했던 이 세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IMF위기에 경험했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불안이 현 시점에 대학생 자녀에게 전이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이러한 부모세대의 가치관과 불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모세대로부터 전이된 가치관은 영역1에 대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갖는 일의 의미에도 영향

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있었음에도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 원했던 진로와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상당 수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4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을 부모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18-25세에 해당하는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s)들은 신체적으로 성숙되고, 법적으로는 거의 성인이며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기-충족(self-sufficiency)을 성취하는 단계이다(Arnett, 2000; Dubas & Petersen, 1996). 우리나라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 성인들은 완전한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준비하지만,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과 독립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님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직, 간접적으로 진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부모에게 전달받은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주제와 패턴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좀 더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의 의미 뿐 아니라, 일의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고 변화시켜 가는지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인의 삶과 진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진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진로에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일의 의미에 있어서의 사회문화

적인 차이는 진로발달 이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기존의 진로 이론은 대부분 서구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어져 왔기 때문에(Zhou, Leung, & Li, 2012),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대학생들의 일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국 대학생들이 처한 사회 경제적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민감한 이해가 요구되며, 그들의 어려움 밑에 존재하는 문화적 가치와 가족의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대학생들이 필요한 발달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지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마무리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경험이나 환경에서 받은 영향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나, 연구에 참여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타인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응답자는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일의 태도에서의 모순을 깨달았다고 응답하여, 포커스 그룹 연구에 참여한 다양한 참여자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성찰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일의 의미를 성찰하는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진로 교육과 진로 상담이 필요함을 이 연구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 보고에 의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에 참가자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부인하거나 낮게 보고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일의 의미와 경험에 대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제한된 표본을 가지고 한국의 대학생들의 경험을 탐색적으로 살펴본 것이므로 한국 대학생의 일의 개념과 진로 정체성 형성경험에 대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던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공통의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 뿐 아니라 상대의 지식도 함께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생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하는 본 연구의 특성 상, 일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참여자가 타인의 입장에 동조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 참여자 개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양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가 한국 대학생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일의 의미와 진로 정체성 형성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갖지만, 실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한 확인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정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있어서, 실제 부모 세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부모 세대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꾸준한 증가로 맞벌이 가

족이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생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장벽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 가운데에는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출산 후에는 달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거나 결혼 후 부양가족이 생기면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어, 결혼이라는 중요한 생애 사건을 중심으로 일에 대한 관점이나 계획이 변화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목표 설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느끼는 내외부적인 진로 장벽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오늘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후속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기승, 윤성원 (2012).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3(4), 1585-1593.
- 김진숙 (2004). 대학생들의 일의 개념. 상담학 연구, 5(4), 973-991.
- 박유정 (2007). 우수 여자 중학생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현 (2011).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06). 청소년이 인식하는 일 가치의

- 변화. *직업교육학회*, 25(3), 163-181.
- 장수현 (2012). 일의 목적/의미 및 부모지지와 구직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윤, 신현균, 김은정, 신희천, 하재룡, 장해미 (2004). 대학 4학년생의 구직 행태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4.
- 장형석 (2001). 직무만족과 일의 의미 정도에 따른 삶의 목적감의 차이. *연구보*, 33(1), 137-158.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Arnett, J. J. (2002). The psychology of globalization. *American Psychologist*, 57, 774-783.
- Arnold, K., Turner, N., Barling, J., Kelloway, E., & McKee, M. (2007).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meaningful work.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2(3), 193-203.
- Baling, J., & Griffiths, A. (2002). *A history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In J. C. Cambell & L. E. Tetrick (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19-3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umeister, R. F.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tz, N. E., & Hackett, G. (1983). The relationship of mathematics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the selection of science-based college maj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3), 329-345.
- Blustein, D. L. (2006).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perspective for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nd public policy*. Mahwah, NJ: Erlbaum.
- Blustein, D. L. (2008) The role of work in psychological health and well-being: a conceptual, historical, and public policy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63(4), 228-240.
- Blustein, D. S., Chaves, A. P., Diemer, M. A., Gallagher, L. A., Marshall, K. G., Sirin, S., & Bhati, K. S. (2002). Voices of the forgotten half: The role of social clas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11-323.
- Blustein, D. L., Kenna, A. C., Gill, N., & DeVoy, J. E. (2008). The psychology of working: A new framework for counseling practice and public polic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6, 294-308.
- Bowe, J., Bowe, J., & Streeter, S. (2000). *Gig: Americans talk about their job*.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Chaves, A. P., Diemer, M. A., Blustein, D. L., Gallagher, L. A., DeVoy, J. E., Casares, M. T., & Perry, J. C. (2004). Conceptions of work: The view from urban you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275-286.
- Chaves, A., Diemer, M. A., Blustein, D. L., Gallagher, L. A., DeVoy, J. E., Casares, M. T. (2004). Conceptions of work: The view from urban you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275-286.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109-119.
- Dubas, J. S., & Petersen, A. C. (1996). Geographical distance from parents and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In J. Graber & J. dubas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71. Leaving home: Understand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pp.3-20). Sna Francisco: Jossey-Bass.
- Evans, K., & Heinz. W. (1994). *Becoming Adults in England and Germany*, Anglo-German Foundation, London and Bonn.
- Ferrari, L., Nota, L., Soresi, S., Blustein, D. L., Murphy, K. A., & Kenna, A. C. (2009). Constructions of work among adolescents in transi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 99-115.
- Gong, Y., Deng, C-P., TakizoYagi, D., Mimura, T., Hwang, M., Lee, D. (2013). Career Counseling in Asian Countries: Historical Development, Current Status, Challenges, and Prospects.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3(1), 9-33.
- Gini, A. (2000). *My job, my self: Work and the creation of the moderns individual*. New York, Routledge.
- Hall, D. T. (1996). *The career is dead-long live the career: A relational approach to care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Hartung, P. J., & Subich, L. M. (2011). *developing self in work and career. Concepts, cases, and contexts*. Washington, DC: APA Books, Inc.
- Harpaz, I., & Fu, X. (2002). The structure of the meaning of work: A relative stability amidst change. *Human Relations*, 55(6), 639-667.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Nut-Williams, E.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Nutt-Williams, E.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 198-217.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Thousand Oaks, CA: Sage.
- Li, C., & Kerpelman, J. (2007).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women's certainty about their career aspirations. *Sex Roles*, 56, 105-115.
- MOW. (1987). *The meaning of working*. London: Academic Press.
- Nord, W. R., Brief, A. P., Atieh, J. M., & Doherty, E. M. (1988). Work values and the conduct of organizational behavior. In B. Staw and L. Cummings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9, pp.1-42). Greenwich, CT: JAI Press.
- Parsons, F. (1909). *Choosing va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Richardson, M. S. (1993). Work in people's lives: A location for counseling psychologis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25-43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0).

-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D. Brown & R. W. Lent(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42-70). Hoboken, NJ: John Wiley.
- Schultheiss, D. E. P.,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M.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2), 216-241.
- Shulman, S., Cohen, O., Feldman, B., & Mahler. A (2006). Emerging adult men and their mothers in divorced families: A typology of relationship patter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3, 481-497.
- Spector, P. E. (2005).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Hoboken, NJ: Wiley.
- Steger, M., Frazier, P., Oishi, S.,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re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Super, D. E. (1990). *A life 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Tanner, J. L. (2005). Recentering during emerging adulthood: A critical turning point in life span human development. In J. J. Arnett & J. L. Tanner (Eds.), *Emerging adulthood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pp. 21-5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hou, S., Leung, S. A., & Li, X. (2012). The meaning of work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indings from prototype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3), 408-423.

1차원고접수 : 2013. 03. 28.

수정원고접수 : 2013. 06. 27.

최종게재결정 : 2013. 09. 12.

A Qualitative study on the meaning of work and experiences of career decision process of university students

MaeHyang Hwang

Hyojin Cho

Yoonjin Cho

Jiwon Ba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work, process of career seeking and career decis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 substantial career seeking and decision process as a task for entering adulthood. To identify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6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27 male and female students currently attend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Common contents were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by classifying the primary categories and the sub-categories based 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meaning of work', 'experience while on career path development', and 'influences from family' were determined as 3 primary categories and 22 sub-categories were also gained. Responses were mainly focused on peripheral aspects such as financial rewards and social acknowledgement in general. It is found that the students were largely affected by family in the process of career development and they determine their career identity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s, various experience, self-exploration and self-comprehension. On the basis of this stud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further studies in terms of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al approach for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Meaning of work, Career decision, Qualitative study, Focus group, CQR*